

## 제주 기독교 순례길 조성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윤홍근\*

### ■ 목차

1. 머리말
2. 제주 순례길 조성의 의미
3. 제주 순례길 운영실태
4. 문화상품 개발방안
5. 맺음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올레길의 보완재 내지 대체재로써 제주 순례길 조성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관광객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문화상품의 개발 방안까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적인 걷기열풍으로 제주도 올레길은 생태자원의 체험에 중점을 두는 자연중심형 도보여행을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올레길의 당초 취지인 명상의 길, 힐링의 길 개념이 희석되고, 자연오염 및 치안부재 등 일부 부작용이 노출됐다. 이런 올레길의 약점보완 차원에서 지역교계의 성지순례 자원화 욕구가 맞물려 2012년 6월에 제1코스 '순종의 길'이 개장한 이후 순교의 길, 사명의 길, 화해의 길 등 기독교 순례길 코스가 개발되었다. 현재 순례길의 관광상품은 순례길 지도 제작 및 순례길 로고, 표지석 설치 등 초기

\* CBS 방송

논문접수일(2013년 10월 10일), 수정일(2013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 11일)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파악한 뒤 관광객들의 욕구(추구 편익)에 따라 영성추구와 건강/웰빙, 자연환경, 문화체험, 기독교 스토리텔링의 개발 등 문화상품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순례길은 소비, 관람형 관광형태인 올레길과 달리 종교 체험이나 교육 등 가치 지향적 여행문화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걷기를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중심형의 관광수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 순례길도 관광객들의 욕구(추구 편익)에 따라 문화상품 개발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순례길, 도보여행, 기독교, 올레길, 문화상품, 영성추구

## 1. 머리말

순례(pilgrimage, 巡禮)는 성지나 영장을 순서대로 참배해서 신앙을 구하고, 심신의 갱생과 신생의 체험 또는 이익을 구하기 위한 종교행위이다. 참배 장소는 종교의 발상지, 본산의 소재지, 성자나 성인의 거주지나 묘, 기적이나 영험을 행하는 장소 등이며, 일반인이 예루살렘 순례에 나서는 풍조는 4세기경에 시작된 것 같다.<sup>1)</sup>

성지 순례로의 확보가 십자군의 발단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십자군 그 자체도 당사자의 의도는 순례였다. 그 당시의 3대 순례지가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에스파냐의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스페인어: Santiago de Compostela)였다. 오늘날은 이 전설의 고장들이 관광지가 되어, 세계 각처에서 순례자가 찾아 들고 있다.

이처럼 순례는 오래된 기독교의 영성수련 가운데 하나이다. 순례 하면 으레 ‘성지순례’의 다른 말로 쓴다. 학자들은 성지순례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월절과 오순절 등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성전에 가서

1) 종교학사전편찬회 저,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제사지내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순례는 그 이후 다양한 의미들을 그 속에 담아냈다. 때로는 회개의 행위이기도 했다. 성인에 대한 존경의 행위로도 대신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도 순례를 떠났다.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팔레스티나로도 순례하였고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로마로도 순례하였다. 8세기 이후부터는 성지순례가 신자들의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의무가 된 성지순례는 고통스러웠다. 먼 여행에서 신자들은 극기와 고행을 익혔으나 사람을 억누르는 짐이 되어 본질이 훼손되기도 했다. 다행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성지순례의 전통은 급격하게 쇠하였다.

오늘날 순례의 전통은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 행하는 영성수련 행위가 되었다. 이슬람교의 성지순례는 '하즈'라 불리며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다. 순례기간 동안 이들은 금욕수행을 하며 규율에 따라 철저히 규제된 행위를 해야 한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성지순례를 통해 고행수도를 하는 신자들을 볼 수 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본 티베트 불교 신자들의 삼보일배 순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오체투지의 일이었다. 그 고통스런 순례를 가족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신비한 삶의 정점에 이른다고 했다. 차마고도를 지나 라싸의 조캉사원으로 이어지는 순례를 통해 그들은 온전한 신자의 행위를 마친 듯 보였다.

최근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El camino de Santiago)을 찾고 또 그곳을 걷고자 꿈꾼다.

야코보 사도가 순교한 길 '카미노'는 푸엔테를 출발하여 산티아고에 이르는 길로 해마다 10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우리나라도 도보 여행 열풍이 불면서 2007년 처음 소개된 제주 올레길은 방문자가 최근에 수십만 명으로 증가해 걷기 문화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걸을 만한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 올레길, 강화 나들길, 지리산 둘레길 등 관광지가 개발돼 도보여행객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도보여행은 자연생

태나 휴식이 강조된 생태중심형 여행 코스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본래의 종교적 영성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이런 도보여행 관광객들의 종교적 체험이라는 추구 편익에 맞춰서 2012년 제주 순례길 4개 코스가 개장되어 기독교 신자들에게 영적 구원, 은혜 체험, 영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케팅의 대부 필립 코틀러는 『마켓3.0: Marketing 3.0』이란 저서에서 소비자의 영성(spirituality)을 강조했다. 3.0시장은 감성을 충족시키는 마케팅을 넘어 영혼을 감동시키는 마케팅을 요구하고, 사람을 영혼을 움직이는 자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3.0시장에서 영성(spirituality)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로써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 즉 의미와 행복, 영적 깨달음 등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sup>2)</sup>

결국 기존 제주 올레길이 자연, 생태자원의 체험에 중점을 두는 자연중심형 도보관광이라고 한다면, 제주 순례길은 영성과 신앙심 강화라는 종교중심형으로 관광객들의 차별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순례길의 조성배경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순례길 조성에 따른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도보 체험관광에서 관광객들의 추구 편익에 따라 시장세분화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한 틈새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필립 코틀러 지음, 『마켓3.0』, 안진환 역, 타임비즈, 2012.

## 2. 제주 순례길 조성의 의미

### 1) 제주 순례길과 제주 올레길의 차이

제주올레길은 지난 2007년 9월 1코스 개통된 이후 2012년 11월, 5년 만에 26개코스(정규코스 21개, 알파 코스5개) 총길이 425km 트래킹 코스로 발전하였다. 올레<sup>3)</sup>는 제주 방언으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한다.

제주올레길은 언론인 서명숙씨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뒤 자신의 고향인 제주에 소담한 자연풍경과 동네길을 엮어 만들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흔들어놓았다.<sup>4)</sup>

2008년 3만 명으로 늘어난 올레 탐방객은 2009년 26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더니 2010년 78만 명, 2011년 109만 명을 넘긴 후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sup>5)</sup>

제주 방문자가 1천만 명에 육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3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와 '올레노믹스'라는 개념으로 논문까지 발표되기도 했다. 제주올레는 단순히 '하나의 길'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까지 확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10대 히트상품'을 선정·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걷기'라는 체험관광 트렌드와 열풍을 이끌어낸 '제주 올레 등 도보 체험관광'을 8위로 꼽기도 했다. 도보여행을 위한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면서 도보여행은 여가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 올레가 여행 히트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리산 둘레 80여개 마을을 잇는 '지리산 둘레길'(약 300km, 현재 70km 조성)과 섬진강을 따라가는 하동의 '박경리 토지

3) 제주 올레길은 집 대문에서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의미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와 풍광을 담은 길로서 발음상 제주에 올래? 라는 초대 의미도 포함한다.

4) 서명숙 외, 『길에게 길을 묻다』, 청어람미디어, 2013, pp.22-23.

5) 송규봉, 「경험은 제품보다 강하다」, 『DBR』, 130호, 2013.

길'(31km)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테마 탐방로들이 등장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제주올레길은 이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도 드러났다. 단순한 자연 풍광 관광 및 올레 완주를 목적으로 한 단체 관광객의 방문자가 늘면서 애초 취지인 명상의 길, 힐링의 길 개념이 희석되고 일부 부작용이 노출됐다.

단체 방문자들이 올레길에 각종 오물을 투척하고 소란행위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나서 올레길 폐쇄 및 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올레 1코스에서 발생한 강력사건<sup>7)</sup>은 올레길 치안의 부재 문제점까지 노출시키기도 했다.

수백년을 이어온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직도 카미노(순례자)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길이 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풍광만을 찾기 위한 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아를 되찾고 깊은 영성이 바탕이 된 길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올레는 산티아고 순례길 형식을 차용했지만 깊은 영성이 빠진 아쉬움이 있었다. 바로 이런 인식에서 제주기독교 순례길이 처음 기획됐다.

제주 올레길이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건강과 힐링을 챙길 수 있는 도보여행상품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제주 순례길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영성수련 등 종교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목적상품으로 볼 수 있다.

## 2) 순례길 조성배경 및 과정

제주 순례길 개장은 기존 제주올레길의 피로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보완재 역할내지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지역 교계의 성지순례 자원조성에 대한 열망이 맞아떨어지면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10대 히트상품」, 『CEO Information』, 735호, 2009, p.18.

7) 2012년 7월 12일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길을 걷던 관광객 A씨(40)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도는 무속의 섬으로 초기 복음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908년 이기풍 선교사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에 첫 복음을 전파하였다.<sup>8)</sup> 제주도에 첫 교회를 출발시킨 이기풍<sup>9)</sup> 목사 이외에 기독교 신자로서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조봉호<sup>10)</sup> 선생, 제주 출신 첫 목사 이도중 목사, 제주 4.3사건 당시 3천명의 주민을 살린 조남수 목사등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교회와 공덕비 등 성지순례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조선 야소교 장로회 금성교회 당회록’에는 1907년 3월 둘째주 조봉호, 이도중, 김진실 등 8명이 애월읍 금성리 바닷가의 양석봉씨택에 모여 기도 모임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미 금성리에는 1904년 기독교인이 된 경신학교 출신의 조봉호가 살고 있었기에 사실일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금성교회와 가까운 곳에는 당시 양석봉의 집이 남아있는 등 보존할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sup>11)</sup>

공식적으로 1908년 제주도 첫 교회가 출발한 이후 백년이 넘는 제주도 교회역사와 자원을 지역교계가 산티아고로의 성지순례를 모델로 개발을 시작하였다.

제주올레길이 전국적 걷기열풍을 불러일으킨 히트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작용이 노출됐다. 단체 방문자들이 올레길에 각종 오물을 투척하고 소란행위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나서 올레길 폐쇄 및 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올레 탐방객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은 올레길 치안의 부재 문제점까지 노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 올레길의 대체재와 지역교계의 성지순례 자원화 욕구가 맞물려 제주기독교순례길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

8)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복음화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한국의 첫 목회자 이기풍(1865~1942)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1908년을 그 출발로 본다.

9) 이기풍은 평양신학대 1회를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로 배출된 일곱 목사 중 한분이며, 제주도 첫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된 후 1942년 경찰 고문을 견디지 못해 75세로 순교했다.

10) 조봉호는 기미년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이듬해에 대구에서 옥사한 제주의 항일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11) 박은배, 『하나님의 거처』, 새로운 사람들, 2009, p.87.

CBS는 2011년 2월 제주올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새로운 종교순례길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주교계와 협의하여 제주기독교순례길 조성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과 및 제주관광공사, 제주 CBS 관계자들이 모여 기독교 순례길 조성을 위한 구체적 예산협의를 벌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제주CBS와 제주관광공사가 자치도 보조-공기업대행 사업 형식으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2년 6월에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서 한림읍 협재리까지 14.2km 구간의 제1코스 '순종의 길'이 개장한 이후 순교의 길, 사명의 길, 화해의 길 등 단계적으로 코스가 개발되었다.

제주에서 최초로 기독교순례길이 개장한데 이어 2012년 9월 15일에는 천주교가 고산성당에서 제주천주교사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과 성지들을 있는 제주천주교 성지 순례길 6개코스(68km)를 개발하였다.<sup>12)</sup>

순례길 제1코스인 '김대건 길'은 김대건 신부가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후 일행 13명과 '라파엘호'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착한 용수 성지이다. 김대건 신부가 고국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차귀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수월봉과 자구네 당산봉을 걷는 코스이다.

이어 2012년 10월 6일에는 제주불교신문과 제주도관광공사가 제주불교성지순례길 첫 코스인 '지계의 길' 개장식을 가졌다.

제주불교성지순례길 조성은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제주지역 사찰과 유적지와 연계해 성지순례 코스로 체계화함으로써 순례객의 마음치유와 더불어 불교와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계의 길은 관음정사를 출발해 월정사를 지나 관음사로 이어지는 총 14.2km의 구간이다. 중간에 오라선원과 보문사, 도륜정사, 구암굴사 등을 만날 수 있다.

12) 6개 코스는 김대건길(12.7km, 고산성당~신창성당)·정난주길(7km, 정난주묘~모슬포성당)·김기량길(8.7km, 김기량 순교현양비~조천성당)·신축화해길(10.8km, 황사평성지~중앙성당)·하논성당길(10.6km, 서귀포성당~북자성당터)·이시돌길(18.2km, 새미은총의 동산~신창성당) 등이다.



[그림 1] 제주 기독교 순례길 코스 소개



[그림 2] 기독교도의 비밀스런 상징인 익투스

이로써 제주에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종교와 관련된 순례길이 잇따라 개발됨으로써 국내 및 해외 종교관광 활성화와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제주 순례길 운영실태

#### 1) 코스별 순례길 개척 및 특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CBS는 3자 공동협업으로 1년 6개월간의 자원조사와 협의를 거쳐 제주기독교순례길 조성작업에 착수했다.

2012년 6월 18일 금성교회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이재천 CBS 사장, 양영

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해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 김정서 제주영락교회 목사 등 기독교 관계자와 현지 주민 200여 명이 참석,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서 한림읍 협재리까지 14.2km 구간의 제1코스 '순종의 길' 개장식이 거행됐다.

제주 순례길은 척박한 제주 땅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된 길을 따라 묵상하는 걷는 길이다.

제주시 애월읍 금성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의 길'(1코스)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다 옥사한 애국지사 조봉호 선생의 신앙과 정신을 느낄 수 있고, 제주 4·3사건의 비극 속에서 순교한 제주 출신 첫 목사 이도종 목사의 생가에서 그의 어린 시절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두번째 기독교순례길 개장은 3곳의 순례길을 새롭게 만들어 서로 연결되도록 했다. 특히 제주 출신 목회자들의 삶과 순교 현장을 찾아 연결하고 있어 순례길의 진정한 의미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모두 2,3,4코스가 개장된 2단계 기독교 순례길에서는 제주출신 1호 목사인 이도종목사의 순교터와 모슬포 지역 주민들을 살려 한국의 윈들러라는 말을 듣는 조남수 목사의 공덕비를 만날 수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육군 훈련소에 마련된 강병대교회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섬기는 조수교회와 고산교회, 용수교회 등을 지나게 된다.

우선 2코스 '순교의 길'은 1코스가 끝나는 협재교회에서 출발한다. 협재교회~조수교회~저지오름~저청교회~청수성결교회~평화박물관~이도종목사 순교터를 연결하는 약 23km의 긴 거리다. 조수교회는 이도종목사가 예배를 인도한 곳이기도 하고 조수리는 조남수 목사가 태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4.3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전쟁 이후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졌고, 현재의 이름다운 건물은 2008년 5월 건축됐다.

'순교의 길'은 제주도 서부 중산간 지역을 종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초기 제주 기독교 교회가 중산간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파된 사실을 만날 수 있다.

3코스 '사명의 길'은 다시 조수교회에서 출발한다. 조수교회-용수저수지-순례자교회-용수교회-용수포구-당산봉-고산교회-노을해안도로-조남수목사 공덕비까지 21.4km를 걷게 된다.

3코스 역시 2코스와 비슷한 거리로 아름다운 용수저수지와 용수포구 그리고 당산봉을 올라 석양과 함께 차귀도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다. 3코스에서 만나는 고산교회는 이도종목사가 시무하면서 부흥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애월읍 금성리에 살고 있던 아버지를 편히 모시지 못해 괴로워하던 이목사가 고산교회에 시무하면서 아버지를 모신 곳으로 효성까지 느껴지는 곳이다.

종착지역인 조남수 목사 공덕비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기독교 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조남수 목사는 1948년 4.3사건으로 모슬포 지역 주민들이 산사람으로 몰리면서 어려움을 당하자 지수 권유 계몽활동을 펼쳐 3천명 이상의 지역 주민을 살린다.

모슬포 지역주민들은 조남수 목사의 활동에 감사해 1996년 진개동산에 공덕비를 세웠다. 조 목사의 이같은 활동은 가장 기독교적인 행동이며, 사랑의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코스 '화해의 길'은 2코스 종착점인 이도종 목사 순교터와 3코스 도착지점인 조남수 목사 공덕비를 연결한 코스다. 4.3의 역사속에 순교한 목사와 사랑을 실천한 목사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길이다.

화해를 위한 4코스는 이도종목사 순교터-대정교회-추사유배지입구-모슬봉-강병대교회-모슬포교회-조남수 목사 공덕비로 이어지는 약 11.3km 구간이다.

강병대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육군 제1훈련소 9대 소장을 부임한 장도영 장군이 1952년 건립했다. 현재는 문화재청 등록 근대군사문화재이지만 현재도 장병들을 위한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

모슬포 지역 첫 유치원인 셋별유치원이 시작된 곳이고, 지역주민을 위해 야간 중학교가 운영되기도 했다. 대정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 공식

지정한 이도종 목사 순교성지이고, 모슬포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지정한 역사유적교회다.

## 2) 현재의 관광 상품화

2012년 1월 10일 제주CBS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기독교 순례길 관광상품화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주기독교 순례길 코스 개발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표 1] 제주 기독교 순례길 코스 개발

코스 이름	거리	시종점	순례 기념유적
1코스 순종의 길	14.2km	금성교회~이도종 목사 생가~애국지사 조봉호 선생 생가~협재교회	금성교회, 이도종 목사 생가, 조봉호 선생 생가
2코스 순교의 길	23km	협재교회~한경면 조수교회~저지오름~저청교회~청수성결 교회~평화박물관~이도종 목사 순교 터	협재교회, 이도종 목사 순교 터
3코스 사명의 길	21.4km	조수교회~용수저수지~순례자교회~용수 교회~용수포구~당산봉~고산교회~노을 해안도로~ 조남수 목사 공덕비	조남수 목사 공덕비
4코스 화해의 길	11.3km	이도종 목사 순교 터~대정교회~추사 유배지~모슬봉~강병대교회~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 공덕비	이도종 목사 순교터, 강병대 교회, 모슬포교회 100주년 기념사료관

두 기관은 ‘공동협력을 통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주 기독교 순례길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순례길 코스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보조를 이루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CBS는 3월부터 순례길 지도 제작 및 순례길 로고, 표지석 설치에 관한 디자인에 착수하여 교계 자문을 거쳐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도 어울리고 기독교적 의미도 담고 있는 물고기 표지(익투스13):초기 기독교도들이 비밀스런

상징으로 썼던 두 개의 곡선을 겹쳐 만든 물고기 모양)를 기독교 순례길 로고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순례길의 유래와 순교자들의 발자취, 주변 관광지 등 각종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제작에도 착수했다.



[그림 3] 조봉호 선생 생가 표지석

제주순례길은 현재 스마트폰 앱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있는 표지석에는 QR코드를 심어놓아 순례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실행시키면 지역에 관한 지도와 동영상 등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들 수 있다.

제주CBS는 이를 위해 영상자료화면 및 기존에 제작된 다큐멘터리중에서 해당 지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3) 익투스(그리스어: ἰχθυς) '물고기 형상'으로 초대기독교인들의 암호로 서로가 물고기 그림을 통하여 암암리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신자인 것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익투스가 예수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아이폰 팟캐스트에서 '김PD의 교회올레'를 검색하면 제주지역 교계의 역사와 순례길에 대한 정보를 다운받거나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

제주순례길 지도는 평면지도 방식이 아니라 3D방식으로 제작되어 순례자들이 지도 한 장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 4. 문화상품 개발방안

##### 1) 도보여행의 관광동기 요인

제주 순례길처럼 도보여행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파악한 뒤 관광객들의 욕구(추구 편익)에 따라 문화상품 개발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sup>14)</sup>

국내 도보관광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게 진행되어 왔다.

박영아·현용호(2009)<sup>15)</sup>는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제주올레 관광객의 동기로 자연친화/체험, 호기심, 자기사색, 자아성취, 자기정화, 건강증진, 가족관계증진, 사교 등 8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관광동기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기사색, 자기정화, 자아성취가 제주올레 관광객의 주요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2010)<sup>16)</sup>는 제주올레 관광객의 추구편익을 26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자연경치를 즐김, 산책할 장소, 스트레스 해소, 단조로운 일상탈출, 평화로움 추구 등의 편익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두 연구의 결과로부터 제주올레 관광객은 공통적으로 자기사색과 성찰에 대한 욕구

14) 윤홍근, 『문화마케팅전략론』, 도서출판 청람, 2013.

15) 박영아·현용호, 「도보여행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호, 2009, pp.75-93.

16)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

와 그에 대한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철·박태영·노경국(2010)<sup>17)</sup>은 제주올레 관광동기 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탈출, 위신, 자기계발, 친목도모, 제주체험과 자연환경 등 6가지 세부 요인을 추출한 뒤 관광동기와 도보관광지 이미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표 2] 도보여행이 유행하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224	16.6
건강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12	15.3
웰빙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134	9.6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125	9.0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118	8.5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117	8.4
정신적인 수양과 성찰의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116	8.3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 p96.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이용객과 잠재 이용객 8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기심/색다른 경험’, ‘자아성찰’, ‘사회적 교류확대’, ‘일상탈출’, ‘문화적 경험 확대’, ‘휴식/건강 증진’ 등 6개의 도보관광 동기 요인이 밝혀졌다. 즉 도보관광객은 도보관광을 통해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여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편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이와 함께 도보관광지의 유형은 종교, 문화, 역사자원의 체험에 중점을 두는 문화중심형(예: 서울 성곽순례, 인천 구도심 도보관광, 대구도심문화 탐방 골목

17) 정철·박태영·노경국, 「제주올레관광객의 방문동기와 사전이미지의 관계」, 『관광학연구』, 34호, 2010, pp.22-25

18) 서울연구원, 「서울시 도보관광 이용실태 조사」, 2013.

투어 등)과 자연, 생태자원의 체험에 중점을 두는 자연중심형(예: 제주올레, 지리산 둘레길, 전북 마실길 등)도보관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9)</sup> 여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순례길을 특성을 고려하면 영성과 신앙심 강화라는 종교중심형을 추가할 수 있다.

중세의 순례길에서 출발한 카미노는 초기 순례목적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도보코스로 진화하였는데, 현대적 변화의 핵심은 순례와 관광의 융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제주올레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보코스는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미노의 마지막 진화단계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로부터, 현재의 국내 도보관광객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도보코스를 방문하기 보다는 여가와 관광활동을 수반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도보관광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올레와 달리 제주 순례길은 대부분의 코스가 오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기독교 관련 유적들이 많다는 사실은 종교적 체험 즉 영성(신앙심)을 강화하기 위해 주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순례길은 일반 관광객이 아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순례를 통해 신앙체험이나 영성을 강화하는 종교적 목적이 강한 도보여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2) 문화상품의 개발 방향

제주 순례길은 종교중심형 도보관광으로 볼 때 영성추구나 신앙심 강화가 주목적이며, 트레킹, 건강/웰빙, 자연환경, 성찰/일상탈출, 문화체험 등의 부목적을 포함한다.

19) 정철·박태영·노경국, 앞의 글, p.15.

이에 따라 문화상품의 개발도 영성추구와 건강/웰빙, 자연환경, 문화체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영성추구

순례여행은 종교상의 성지(聖地)나 영장(靈場)을 찾아다니면서 참배하는 여행이다. 제주 순례길도 일본 시코쿠 남경장<sup>20)</sup>처럼 ‘순례자 여권’을 발급하면서 순례를 지속할 수 있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제주 기독교 순례길은 순례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순례자 여권을 만들어 기점과 종점에서 완주를 확인하는 등의 증명서 발급, 순례길 해설사 양성, 전국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관련 책자 및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 순례길 자문위원회는 향후 순례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순례길 해설사 양성이 관건이라고 보고, 2012년부터 해설사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 (2) 건강/웰빙

순례자들은 도보여행 코스에 위치한 교회의 숙박시설을 개방하기를 희망하거나 지역교회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거래하여 먹거리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지역 교회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다양한 숙소 정보와 먹거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자립교회가 많은 농촌지역 지역교계와 농촌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 미자립교회가 많은 농촌지역에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팜스테이(Farm Stay)방식으로 농촌일손돕기 프로그램과 연

20) 남경장은 사찰에 참배를 하였다든 하나의 증명으로서 그 사찰로부터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계한다면 도, 농간 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삼일교회는 해마다 7월에 제주의 각 농촌지역에 젊은 청년부들이 1천명이상 정기적으로 내려가 농촌일손을 돕고 지역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청년들에게 순례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코스로 자리잡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교회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도시 교회간 직접 거래 등을 통해서 순례길 이 신앙, 교육, 경제적 측면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3) 자연환경

“제주 기독교 순례길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협재해수욕장 부근의 협재교회로 일단 끝이 난다. 길을 걸으면서 제주 바닷가의 풍광을 즐기며 해녀들의 활동도 볼 수 있다. 올레길과 겹쳐진 길도 있다. 올레길을 걷는 크리스천들이 순례길까지 함께 걷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순례길 4개 코스에는 평화박물관, 이도종 목사 순교지, 대정교회, 강병대교회 등 유적지 별로 표지판을 세우고 도처에 순례길을 알려주는 물고기 표지(익투스)를 만들어 순례자들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제주 올레가 길안내표시로 지역특성에 맞는 말 모양의 ‘간세’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순례길 표식도 바다를 둘러싼 제주의 상징성과 기독교인에게 의미가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졌다. 순례길을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를 브랜드로 개발하여 각 코스를 상징하는 기념품(T 셔츠, 수건, 물컵)을 제작, 판매할 수 있다.

제주 순례길은 바다이고 숲이고, 낙엽이며 바람이며 영혼의 부름을 따라 걷는 모든 이들은 카미노(순례자)다. 제주 돌담길을 따라 걷는 순례자의 모습에서 자연의 풍광을 즐기고 신앙심을 갈구하는 구도자의 모습이 느껴진다.

### (4) 문화체험

제주 순례길에는 성안수양관, 이도종 목사 생가, 조봉호 선생 생가, 조남수 목



[그림 4] 제주 4·3사건의 비극 속에서 순교한 이도종 목사 기념비



[그림 5] 한국의 선들러 조남수 목사 공덕비

사 공덕비 등 기독교 관련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시설들은 영성수양과 단련을 하는 체험센터로 활용하고, 비기독교인들을 마음수양과 정신적 위안을 경험하는 체험명소로 유인할 수 있다. 특히, 종교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센터가 건립되면 현대인의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위안을 주고 신앙심을 강화하는 수양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걷기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순례 아카데미’를 가동하여 오전에는 순례길과 제주도의 기독교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직접 순례길을 걸어보는 현장학습으로 진행한다.

#### (5) 기독교 스토리텔링의 개발

순례길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풍부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 순례길의 경우 초기 기독교인들 중 선각자들이 많아 독립운동사건에 관여하거나 4.3당시 이념적으로 대립된 상황 속에서 화합과 안정을 위해 목회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랐고 갈등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스토리들이 발굴됐다.

특히 제주출신 최초의 목사인 이도종목사가 순회목회 도중 무장대에 의해 순교 당하는 역사와 송실대 유학생이던 조봉호조사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에 나선 혐의로 일경에 체포돼 모진 고문 끝에 이듬해 옥사한 사건 등은 초기 기독교역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일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례들은 교계에서만 거론되는 사건이었지만 순례길을 통해 다수의 순례자들이 접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직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제주 기독교계의 수난사를 기반으로 오페라와 뮤지컬이 창작되어 순례자이나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상품을 제공될 수 있다. 가톨릭계는 지난 2004년 김대건 신부의 일생을 그린 창작 뮤지컬<위대한 신부 김대건>을 제작하여 가톨릭 신자와 일반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표 3] 제주 순례길의 문화상품 개발 방안

개발 유형	상품개발	특징
영성추구	순례자 여권 발급	순례자 여권을 만들어 기점과 종점에서 완주를 확인하는 등의 증명서 발급
	순례길 해설사 양성	제주지역 기독교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에 대한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유적지를 설명해주는 인력 양성
	관련 책자 및 가이드북 제작	제주 순례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함께 가이드 북을 제작 배포
	CBS 모바일 앱 '제주 순례길' 개발	제주 순례길에 대한 의의, 교통 정보 안내 및 의미 있는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사진과 영상 제공
건강/웰빙	체험형 숙박시설 운영	교회의 숙박시설을 개방, 민박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
	지역교회 직거래 장터 개설	지역교회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도시 교회간 직접 거래
자연환경	친환경 순례길 조성	해수욕장, 돌담길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순례길 조성
	익투스 브랜드화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를 브랜드로 개발하여 각 코스를 상징하는 기념품 제작, 판매
문화체험	기독교 관련 문화유산 활용	성안수양관, 이도종 목사 생가, 조봉호 선생 생가, 조남수 목사 공덕비 등 문화유적지 체험

	걷기축제 개최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순례 아카데미	오전에는 순례길과 제주도 기독교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 오후에는 직접 순례길을 걸어보는 현장학습
스토리텔링 개발	기독교 스토리 개발	이도종 목사의 순교 및 조봉호 조사의 독립운동 등 목회자의 희생과 헌신의 스토리 구축
	창작 오페라, 뮤지컬 제작	제주 기독교계의 수난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오페라 및 뮤지컬 제작

## 5. 맺음말

전국적으로 확산된 걷기열풍과 맞물리면서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서울 성곽길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의 도보여행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도보체험관광이 디지털시대에서 아날로그 체험가치와 힐링(healing)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순례길이 다른 도보여행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체험상품’이지만 순례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체험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순례길은 길이 주는 상징성에 더해지는 자아성찰의 개념으로 영성과 신앙심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제주 올레길은 인위적으로 짜여진 틀이 아니라 자연 공간 속에 스토리를 찾아 테마별로 묶어낸 코스로 자연생태형 도보여행이다.

제주 순례길은 종교적 의미의 영성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건강/웰빙, 자연환경, 문화체험 등을 걷기를 통해 만끽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 기독교 순례길은 영성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순례자를 위하여 순례자 여권을 만들어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

레길 해설사 양성, 전국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관련 책자 및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종교적 힐링(위안)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제주 순례길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풍부한 스토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주 초기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에 관여하거나 4.3사건 당시 이념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는 등 매력적인 이야기가 많은 만큼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의 개발이 요구된다.

제주 기독교 순례길 개장은 기틀릭이나 불교 등 종교와 관련된 순례길 조성을 촉발시켰고, 제주도에 3대 종단의 순례길이 조성되어 국내 및 해외 종교관광 활성화에 계기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 경우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참여하여 4대 종단 성지가 포함된 9개 코스 총 240km의 종교 순례코스를 공동개발 한 결과, 9박 10일 일정의 코스가 개설되었고, 2009년 개통이후 2만명의 순례객이 방문하였다.

2013년 9월 28일 전북지역에서 '세계순례대회'가 열렸다.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와 신도 등 2천여 명은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세계순례대회 개막식을 하고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이 순례길은 각 종단이 2009년 전주~완주~김제~익산을 잇는 240km를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에는 4대 종단의 국내외 지도자와 신도 1만 5천여명이 참가했으며, 7박8일 동안 9개 코스, 240km의 순례길을 걸으며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종교 간 상생을 다졌다.<sup>21)</sup>

본 연구는 올레길의 보완재 내지 대체재로써 제주 순례길의 조성과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순례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문화상품의 개발 방안까지 살펴보았다.

종교적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순례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사업 초기 일부에서

21) 「600리 구도의 길...세계순례대회 개막」, 『연합뉴스』, 2013년 9월 28일자.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제주도의 기독교 정착의 역사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문화적 유산이라는 인식에서 순례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순례길은 소비, 관람형 관광형태인 올레길과 달리 종교 체험, 교육 등 가치 지향적 여행문화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걷기를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 중심형의 관광수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K C I

## 참고문헌

- 고선영, 김형호 공저, 『제주 여행의 달인』, 리더스하우스, 2013.
- 남양희, 「스토리텔링을 통한 내앞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
- 박은배, 『하나님의 거처』, 새로운사람들, 2009, p.87.
-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10대 히트상품」, 『CEO Information』 735호, 2009, p.18.
- 서명숙 외, 『길에게 길을 묻다』, 청어람미디어, 2013.
- 송규봉, 「경험은 제품보다 강하다」, 『DBR』 130호, 2013. 6. 8.
- 서울연구원, 「서울시 도보관광 이용실태 조사」, 2013.
- 윤나리, 「백제문화권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논문, 2009.
- 윤홍근, 『문화마케팅전략론』, 도서출판 청람, 2013.
- 이보미, 「제주 올레길 경험의 역동성 연구」, 세종대 관광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이혜영, 『지리산 둘레길: 시작과 끝을 잇는 700리 걷기여행』, 우공이산, 2012.
- 정철·박태영·노경국, 「제주올레관광객의 방문동기와 사전이미지의 관계」, 『관광학연구』, 34호, 2010.
- 최병길, 「슬로우 투어리즘의 만족과 재방문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필립 코틀러, 『마켓3.0』, 안진환 역, 타임비즈, 2012.
- 「600리 구도의 길...세계순례대회 개막」, 『연합뉴스』, 2013년 9월 28일자.

**【Abstract】**

The Operation of Jeju Pilgrimage Trail and Cultural  
Product Development Plan

Hong Keun Yoon(cbsyhk@daum.net)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status to the Jeju pilgrimage, on the basis of the basic needs of pilgrims of cultural goods to the Development Plan aims to look at.

Jeju Olle way that focuses on the experience of ecological resources oriented nature walking tours were popular. However, the purpose of which is to olle path of meditation, healing and the way the concept of dilution Some side effects, such as natural pollution and the absence of security has been exposed.

Local members desire of Christian pilgrimage trail engaged in June 2012 the first course the way of obedience after the opening Martyrdom of the way, the way of the mission, including the Christian way of reconciliation, pilgrimage course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develop a new tourism products identified motivation behind Tourists' needs based on the pursuit of spirituality and health, wellness, natural environment, cultural experiences. Jeju pilgrimage trail to seek spirituality through religion-centric seems to be positioned as a tourism demand.

Key Words : Jeju Olle way, Jeju pilgrimage trail, spirituality, the way of obedience, cultural experiences